

가득이나 어려운데... 노사 갈등에 골병드는 후입계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됐지만
금속노조 90% 반대, 갈등 예고
한국지엠, 단체교섭 6차례 무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
현대차, 노사 임단협 진행중
4차례 교섭에도 여전히 평행선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QM6를 생산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멈추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노사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실시한 2018년 임단협 최종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74.4% 찬성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지난해 6월 상견례 이후 1년 동안 진행된 교섭을 마무리했다. 투표는 유권자 2149명 중 2063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 출신이 많은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39명 중 투표자

(35명)의 91.4%인 32명이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향후 노조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게 업계 관계자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9일과 20일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단체교섭

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

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 대신 본관 건물 대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의 쟁의권 확보 추진은 올해만 두 번째다. 올해 4월 한국지엠 연구개발 시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후 이달 12일까지 네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조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

급 등이 있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단체교섭 4대 핵심과제는 정년·통상임금·고용안정·축적 등이 있지만 노조는 이 중 정년연장을 먼저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정년 퇴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 조합원 30%에 해당하는 1만7500명이 2025년까지 정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 역시 정년연장 요구안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도 올해 임단협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다. 2심까지 노조가 승소한 기아차와 세부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기아차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9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면 새 집행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더 뉴 QM6 LPe /르노삼성자동차

국내 첫 LPG SUV '더 뉴 QM6' 출시

르노삼성
더 뉴 QM6 GDe·LPe 2종 선택
부분 변경으로 품질·사양 보장

르노삼성자동차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QM6'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이번 부분변경 모델 더 뉴 QM6를 통해 품질과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가솔린 파워트레인(GDe) 외에도 최고급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에르'를 도입해 국내 유일 LPG(액화석유가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LPG 파워트레인(LPe)을 처음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더 뉴 QM6는 외관 디자인에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 크롬 테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프론트 범퍼에 크롬 버티컬 라인을 적용해 시각적 이미지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론트 스키드 디자인 변경을 통해 스포티한 면모까지 강조했다.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으로서의 포지셔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신규 편의사양도 업그레이드됐다. ▲2열 시트릴라이닝 ▲운전석 메모리·마사지 시트 ▲운전석 매뉴얼 쿠션 익스텐

션 ▲풀 스크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 집중 보강됐다.

새롭게 도입된 프리미엄 모델은 르노삼성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최상위 플래그십 브랜드다. 프리미엄만의 차별화된 고급성을 표현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그릴과 사이드 엠블리시에 프리미엄 전용 로고가 적용됐으며 프리미엄 전용 스키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형상화한 19인치 투톤 전용 알로이 휠, 1열과 2열 윈도의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와 2열 프라이버시 글라스, 빈티지 레드 보디컬러 등이 신규 적용됐다.

한편 LPG 모델인 더 뉴 QM6 LPe의 도넛탱크 용량은 75 l 로 80% 수준인 LPG 60 l 를 충전할 경우 약 534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더 뉴 QM6 GDe 모델의 가격은 ▲SE 트림 2445만원 ▲LE 트림 2602만원 ▲RE 트림 2838만원 ▲RE 시그니처 트림 3014만원이다. 최상의 품질과 사양, 디테일을 갖춘 더 뉴 QM6 GDe 프리미엄의 가격은 3289만원으로 책정됐으며 LPe 모델의 가격은 ▲SE 트림 2376만원 ▲LE 트림 2533만원 ▲RE 트림 2769만원 ▲RE 시그니처 트림 2946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월 129만원으로 K9·스팅어·카니발 등 1회씩 교체 이용

기아차, 최초 구독형 렌터카 서비스 선택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론칭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은 월 단위 요금 129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K9, 스팅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교체해 이용 가능하며, 니로EV를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기아차 최초의 구독형 서비스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은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계약·결제·예약·배송·반납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철저한 점검 과정을 통해 관리되는 차량을 제공받기 때문에 정비 및 소모품 관리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보험료·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비



기아자동차는 구독형 렌터카 서비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용도 범도로 들지 않아 기아의 프리미엄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로 설계됐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3일 전까지 앱을 통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예약하면 되며,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차량을 탑승 받을 수 있다.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3개월 묶음 요금제 이용 시 월 5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K9·스팅어 신차를 출고하는 고객은 3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50명 한정모집 '기아 플렉스' 가입자를 모집하며,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하고 본인 명의의 개인·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지난 2017년 위블을 시작으로 혁신적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론칭하며 시장의 리더 컴퍼니로서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며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기아차는 향후 신규 차량 투입 등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대한항공, 美 요리행사서 기내식 비빔밥 선보여

시식용 5400인분 제공... 뜨거운 호응

대한항공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 콜로라도 주 아스펜에서 열린 '제 35회 푸드 & 와인 클래식'에서 비빔밥 기내식을 선보이는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매년 6월 미국 아스펜에서 열리는 '푸드 & 와인 클래식' 행사는 미국 타임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푸드 & 와인'에서 개최하는 음식 및 와인 축제로 마사 스투어트, 제이제이 존슨, 게일 시몬스 등 세계적인 유명 요리사와 와인 전문가들이 참가해 80여개의 조리 시연과 요리 경연 대회를 펼친



객실승무원이 시식용 비빔밥을 나눠주고 있다. /대한항공

행사서 한식 전문 기내식 조리사가 조리 장면을 직접 시연하고 비빔밥의 유래와 조리법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했다. 또한 한식그룹이 운영하는 제동 목장을 소개하며 직접 사육한 한우와 토종닭을 기내식 메뉴로 활용하는 대한항공 기내식 서비스의 특별함을 알려 방문객의 관심이 주목됐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완성된 비빔밥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건강식인 비빔밥에 대한 미국 현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3일 동안 준비한 5400인분의 시식용 비빔밥이 품이 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정연우 기자

다. 아스펜은 미국 내 고급 스키 리조트로 알려진 곳이다.

10번째 참가 중인 대한항공은 이날